

이상 소설의 주석학을 위해

김 주 현*

요약

이상은 작품에서 문자 실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기 형태를 썼다. 그의 낱말들은 실로 다양하며, 그래서 그 의미도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 동일 낱말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같은 대상이 다른 표기로도 나타나며, 하나의 기표가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는 당시 한글맞춤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또한 우리 글이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기도 하다.

이상 문학에는 문선과 식자, 인쇄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들이 발생했다. 글자가 잘못 배열되거나 글자의 일부만 인쇄 또는 아예 낙자된 경우, 획이 더 들어가 다른 글자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전 전집 편찬자들은 그러한 부분에 주목하고 글자를 교정하였다. 그러나 잘못 교정되거나 제대로 교정되지 않은 경우, 잘못 해석되거나 미처 해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소설에 대해 주석학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전 편찬자들이 '회탁'을 '오탁' 또는 '회략'으로 보았는데, 이는 흐리고 탁하다는 '회탁'이 맞다. 아울러 '봉도라지'(봉우리)를 '봉도라지'로, '그적에'를 '그저께'로, '교통'을 '고통'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안파(안파)'를 '아파', '덩어리'를 '범어리'로 보는 것도 오류일 것이다. 한편 '窈窕淑女'는 '窈窕淑女', '장정업시'는 '작정업시', '씨인'은 '씨인'의 오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무소용인'은 '모도 무소용인'의, '단할'은 '판단할'의 탈자로, '이니는'은 '니이는'의 오배열로 보이며, '물뿌리'는 '빨뿌리'를, '자저간다'는 '횃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러한 판본의 교감 및 주석 작업으로 좀 더 나은 판본을 구성하고, 어휘에 대한 심층적 해석에 이를 수 있다.

주제어 : 이상, 이상 소설, 주석학, 교감, 오자, 탈자, 복자, 첨자, 주석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기존 편찬자들의 판본 교정
3. 각 판본의 교감 및 어휘 주석
4.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이상은 스물 일곱에 요절했다. 그는 수많은 작품을 썼지만, 생전에 작품집이 나오지는 못했다. 첫 작품집이 나온 것은 김기림에 의해서이다. 이상은 절친이자 지우었던 김기림의 시집 『기상도』를 편집하고 장정을 하여 발행했다. 그런 이상이 요절하자 김기림은 “이제 우리들 몇몇 남은 벗들이 箱에게 바칠 義務는 箱의 피 영킨 遺稿를 모아서 箱이 것처럼 알 써 親하려고 하든 새 時代에 선물하는 일”¹⁾이라고 했다. 그는 이상의 ‘유고집을 만드는 일’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고, 해방이 되자 『이상선집』(1949)을 발간했다.

『이상선집』은 이상 작품 가운데 일부를 묶은 것이다. 김기림의 선집이 나온 이후 임종국은 이상 작품들을 수습하여 『이상선집』(1956) 3권을 간행했고, 이어령 역시 작품을 추가하여 『이상문학전집』(1977)을 간행했다. 이후 이승훈과 김윤식은 『이상문학전집』(1989~1993)을, 김주현은 『이상문학전집』(2005, 2009, 2025)을 간행하였으며, 권영민 역시 『이상선집』(2009, 2013)을 발간했다. 근대 작가 가운데 가장 여러 차례 전집이 나왔으며, 이로 인해 이상 연구는 심화 및 확산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논란이 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정확한 원전이야말로 연구에 있어서 토대가 되며, 온전한 주석은 연구의 시금석”

1) 김기림, 「고 이상의 추억」, 『조광』, 1937.6, 315면.

이다.²⁾ 잘못된 판본은 연구의 오류로 이어지기 때문에 판본 비교를 통해 교감할 필요가 있고, 또한 기존 주석을 연구하여 온전한 주석에 이를 필요가 있다.³⁾ 이상은 「선에 관한 각서7」에서 “蒼空, 秋天, 蒼天, 青天, 長天, 一天, 蒼穹”⁴⁾ 등 하늘을 ‘視覺의 이름’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위독」에서 “機能語, 組織語, 構成語, 思索語로 된 한글 文字 追求試驗”을 했다고 하였다.⁵⁾ 그는 ‘난해한 작가’, ‘실험적 작가’, ‘전위적 작가’ 등으로 불리는 데, 다른 작가보다도 기호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소설에 대해 주석학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⁶⁾ 우선 판본의 오류를 교감하고, 이어 어휘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추구할 것이다. 이상 작품의 최초 발표본과 그간 발행된 선집, 전집의 판본을 비교 검토하고, 잘못된 주석을 바로잡아 연구의 토대를 튼실히 하고자 한다. 판본 비교를 통한 교감을 하는데, 이때 당대의 인쇄 상황도 살필 것이다. 활판 인쇄는 활자 상자에서 활자를 뽑아 위치에 맞게 배열하는 문선 및 식자, 그리고 교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자, 탈자, 오식, 오첨자(중복자), 오배열뿐만 아니라 인쇄 오류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리고 자형과 자의, 자음에 주목하여 어휘에 대한 심층적이고 정밀하게 해석하고자 한다. 당시는 맞춤법이 정착되기 이전이라 표기체, 맞춤법,

2) 김주현, 「정본 전집을 위하여」, 『이상문학전집』, 소명출판, 2009, 19면.

3) 본 연구자는 2010년 이상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상 문학의 주석에서 주석학으로”를 주장하였다. 판본의 다양한 오류와 난삽하고 제각각인 주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 논문은 「이상 문학의 주석학」(『실험과 해체, 이상 문학 연구』, 지식산업사, 2014, 210~236면) 참조.

4) 이 상, 「삼차각설계도-선에 관한 각서7」, 『朝鮮と建築』, 1931.10, 31면.

5) 조선일보사출판부 편, 「이상서간-기림형」, 『여성』, 1939.6, 83면.

6) 주석학은 주로 성서나 경전 연구에서 비롯된 방법론이다. 이는 사상 철학뿐만 아니라 『시경』과 같은 문학 연구에도 긴요한 방법이다. 청대에 고증학자들도 그러한 방법을 썼고, 한국 근대에도 신채호는 역사 연구에서, 한용운은 불교 해석에서 그러한 방법론을 제기 및 활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신채호, 예기심, 왕요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신채호, 『조선사연구초』, 朝鮮圖書株式會社, 1929., 예기심, 신승운 외 역, 『교감학개론』, 한국고전번역원, 2014., 왕요남, 신승운 외 역, 『주석학개론』(전2권), 한국고전번역원, 2021.

띄어쓰기의 과도기였다. 낱말 주석을 위해 단재가 제시한 자증, 방증, 소증, 연증, 호증, 분증뿐만 아니라 주석학의 토대인 교감학의 대교, 본교, 타교, 이교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⁷⁾ 곧 판본의 교감 및 어휘의 주석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2. 기존 편찬자들의 판본 교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상 문학의 선집 및 전집은 여러 차례 나왔다. 편찬자는 최초 발표본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옮기기도 하고, 발간 당시의 표기체로 고치기도 한다. 그런데 최초 발표본에는 식자공의 오식이 끼어들기도 한다. 그래서 편찬자들은 낱말의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 오식으로 간주하여 고치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은 선집을 묶은 김기림을 비롯하여 이후 편찬자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먼저 이 장에서는 이상 소설에 대한 교감 및 교정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⁸⁾ 신채호는 인판(印版) 이전 초사(抄寫)에도 전도(顛倒), 와오(訛誤), 탈락(脫落), 증첩(增疊)된 자구가 허다(許多)하여 고증을 통한 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⁹⁾ 여기에서는 오자, 탈자, 도자, 오첨자, 오배열

7) 신채호는 본문(本文)의 자증(自證), 동류(同類)의 방증(旁證), 3) 전명(前名)의 소증(溯證), 후명(後名)의 연증(沿證), 동명이자(同名異字)의 호증(互證), 이신동명(異身同名)의 분증(分證)을 내세웠으며, 왕요남은 교감의 방법으로 책의 조본이나 별본을 대조하여 교감하는 대교법(對校法), 본서의 전후를 서로 증명하여 그 차이점을 찾아내어 오류를 아는 본교법(本校法), 다른 책으로 본서를 교감하는 타교법(他校法), 근거할 만한 교본이 없거나 여러 판본이 서로 다를 때 활용하는 이교법(理校法)을 내세웠다.

8) 교감은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이어령의 경우 최초 발표본과 전집본을 비교 검토하며 '교정'이라는 표현을 썼고, 근대 인쇄 과정에서 교열이라는 말도 종종 썼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교감학이라 부른다. 예기심, 신승운 외 역, 『교감학개론』, 한국고전번역원, 2014.

9) 신채호, 「삼국지동이열전 교정」, 『동아일보』, 1925.1.16.

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1) 오자(誤字) 교정

작가의 원고가 문선공과 식자공의 손을 거쳐 활자화되면서 적지 않은 오류들이 발생한다. 이상은 “한 자식의 誤字를 挿入”(『동해』, 237면)하거나, “두 字 以上の 誤字를 犯”(『중생기』, 348면)하는 등 오자에 대해 언급했다.¹⁰⁾ 원고나 발표본에 오류가 있는데, 전집 편찬자들은 그러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최초 발표본에 나타난 오식과 그 교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내방이 벽에 못한개교치지않은 소박한것인반대로 안해방에는천정밑으로 쪽 돌려 못이박히고 못마다 화려한 안해의 치마와저고리가 걸렸다.(『날개』, 199~200면)

S같은 이러비철저리비철하면서 裕貞의着衣一式을 주서들고 바-로 뜯어말린답시고 한가온데가끼어서 꾸기적꾸기적하는데 가는발길 오는발길에 이래저래 被害가많은꼴이다.(『김유정』, 92면)

김기림은 『이상선집』 ‘창작’에 「날개」, 「봉별기」, 「지주회시」와 ‘수상’에 「공포의 기록」, 「김유정」을 포함했다. 그의 선집에는 일부 낱말들이

10) 이상 작품의 인용 시 괄호 속에 작품명과 최초 발표본의 면수를 기입하기로 한다. 「12월 12일」은 연재 횟수와 면수, 신문에 발표된 작품의 경우 발행일을 표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김기림의 선집은 선집, 임종국 전집은 전집1, 이어령은 전집2, 김윤식은 전집3, 김주현은 전집4, 권영민은 전집5로 각각 표기하기로 한다. 아울러 밑줄은 강조를 위해 인용자가 하였으며,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김기림 편, 『이상선집』, 백양당, 1949., 임종국 편, 『이상선집』, 태성사, 1956., 이어령 편, 『이상소설전작집』, 갑인출판사, 1977., 김윤식 편, 『이상문학전집2』, 문학사상사, 1992., 김주현 주해, 『개정정본이상문학전집』, 소명출판, 2025., 권영민 편, 『이상선집』, 태학사, 2013.

교정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직접 교정한 것이다. 김기림은 위 밑줄 부분을 “못 한개 꽃치지 않은”(선집, 20면)으로 교정했다. ‘교’가 그 구절에 적절치 않아 형태상 유사한 ‘꼬’로 본 것이다. ‘꼬치다(꽃치다)’가 뒷 구절 ‘박히다’와 같은 의미라는 점에서 그의 교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못 한개도 치지 않은’으로 읽어도 의미상 차이가 없지만, ‘교’가 형태상 ‘도’보다 ‘꼬’에 가깝기에 김기림의 교정은 의미가 있다.¹¹⁾

김기림은 「김유정」의 ‘S군’을 ‘B군’으로 교정했다. 처음 S군과 B군의 불화에 유정이 병거지와 두루마기를 벗어던지고 그 싸움에 끼어들어 S군과 싸운다. 이때 유정의 옷들을 주워들고 싸움을 말리는 사람은 ‘B군’이다. 김기림은 앞뒤 문장을 대교하여 잘못된 ‘S군’을 ‘B군’(선집, 178면)으로 바로잡았다. 전집1에서는 이 교정을 수용하였지만, 전집2·전집3·전집5는 원문 그대로 썼다.

S는 무슨생각으로앗랬는지 개발에편자라는말이있지안냐고그리면서
(「지팽이역사」, 35면)

이런제가 衍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린다면 衍께서는 역정을 내이시나요?
그럼 감사한다는 기문만은 제기분에서 삭제하기로 하지요.(「단발」, 12면)

그러면 돌쇠는 할수는시 또황소를쓰러내이고맙니다(「황소와 도깨비」,
1937.3.7)

임종국은 광범위한 교정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는 「지팽이역사」의 ‘앗랬는지’를 “그랬는지”¹²⁾로 수정했고, 전집2에서는 “알았는지”(204면)로 고

11) 김기림은 이외에도 안행→안해, 금고평→금고형, 색각하여→생각하여, 숙명정→숙명적(「날개」), 한만다→한마디(「봉별기」), 외투→외투(「지주회사」), 근질근질→근질근질, 어린석은→어리석은(「공포의 기록」)의 오석을 바로잡았다.

12) 임종국 편, 『이상전집』, 문성사, 1966, 192면.

쳤다. 이상이 “무슨생각으로 그랬는지모르지만”(「날개」, 213면)을 썼을 뿐만 아니라, 형태상 ‘그랬는지’에 가깝기에 첫 글자의 오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단발」의 ‘기문만’을 ‘기분만’(전집1, 63면)으로 수정했다. 이는 뒤에 나오는 ‘기분’을 통해 적절히 교정한 것이다. 그리고 「동해」의 “돈지갑을 얻는포켓에다 넣었는지”(「동해」, 230면)에서 ‘얻는’을 ‘어느’(전집1, 126면)로 수정하였다. ‘어느’은 「12월 12일」에서 9회나 나오며, 이는 얻는→어는→어느로 전개됨으로 형태상으로는 의미상으로 적절하다.

「환시기」의 “순영의얼굴에서 순간 원광이사라졌다.”(59면)에서 ‘원광’을 ‘월광’(전집1, 95면)으로 교정하였다. 이 구절 앞에 “순영의얼굴은 月光속에 있는것처럼 아름다웠다.”(59면)라는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은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할수는시’를 ‘할 수 없이’(전집1, 225면), 할수업시(전집2, 239면)로 교정했다. 「황소와 도깨비」에는 “할수업시 소등에올라타던니”(1937.3.6), “할수업시 돌쇠는 소의곱비를 노코”(1937.3.8) 등 ‘할수업시’가 4군데 나오며, ‘할수는시’는 문맥상 그것들과 동궤에 놓여있다. 이처럼 이상의 작품은 같은 작품의 앞뒤 문장이나 문맥, 또는 다른 작품의 문맥을 통해 교정이 가능한데, 이는 대교 및 본교의 방법이다. 이처럼 임종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밀하게 오자를 교정하였다.¹³⁾

「에 — 다실소 돈벌어가지고오는것도아모것도다실소 …(중략)… 그건
 다내가 알배안이넋깐 어머니를나한테 써맛기고갈생각은숨에도마시요」
 이럿게 M은그의면전에서 한번에획 — 배앗허버리고말았다.(1회-110면)

13) 임종국은 이외에도 열골→얼골(얼굴), 조출만차→조홀만치(「지도의 암실」), 중엄거리고→중열거리고, 소의새→소의 배, 왕소→황소(「황소와 도깨비」), 승영은→순영은(「환시기」), 경험이다→경험이다(「동해」), 한복음→한목음, 산女→少女, 음보를→음모를, 속망적→숙명적(「단발」), 췌제번→셋제번, 慘儻하→慘儻한(「실화」), 다섯字→다섯字, 탐이리라→탓이리라, 맑고→얇고, 마든대로→마음대로, 서울한→서운한, 알은→날은, 앓으면→않으면, 당장→단장, 산결→살결, 마났다→만났다(「중생기」)의 오식을 바로잡았다.

첫발표본의 ‘이렇게 M은’이 전집2에서 ‘이렇게 T는’(22면)으로 수정되었 으며, 이는 전집3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2월 12일」은 먼저 『문학사상』에 소개되었는데, 그것을 전집에 실은 것이다. 당시 주간이 이어령 이었고, 또한 이 작품 뒤에 그가 「이상문학의 출발점」을 실었다는 측면에서 위의 교정 교감은 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 위 인용문에서 ‘에 다 싫소’라고 말하는 사람은 T이며, 청자는 형인 그(x)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T가 그(x)의 면전에 내뱉은 말이며, M은 그의 친구일 뿐 이 대화와는 무관하다.¹⁵⁾

두시에는남편노릇하는사람들이일일이영접하러오는그들여급의신기한 생활을그는들어알고있다. 안해는마주오지안는그를애정을구실로몇번이나 책망하였으나(「지주회시」, 236면)

나는 갑발자족같은 발자족을내이면서 덩병덩병 안해방을디디고 그리고 내방으로가서 쪽빠진웃을활활 버서버리고 이불을 뒤췌다.(「날개」, 210면)

나는 저녁이면 尹균을이용해서는 순영이있는 빠—모록코예를 부리냥 게 드나들었다.(「환시기」, 59면)

전집5에서 ‘마주오지’를 ‘마중오지’(65면)로, ‘갑발자족’을 ‘감발자족’(94면)으로 보았다. 전자는 바로 앞 문장의 ‘영접’이 ‘마중’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그리고 ‘감발’은 발에 감는 좁고 긴 무명천을 의미

14) 이어령, 「이상문학의 출발점」, 『문학사상』, 1975.9, 282~284면.

15) 문학사상사 및 이어령은 이외에도 문명의→운명의, 형명적→혁명적, 눈물이→눈물이, 행복→행복, 최후당→최후적, 존재→존재, 업시→업씨, 명영→면영, 잇술→있을, 의운→의문, 각자→작가(「12월 12일」), 분피물→분비물, 불해함→불행함(「휴업과 사정」), 기차계→기차에, 부일에게→부인에게(「집행이역사」), 전집한길→전집 한질(「환시기」)로 오석을 바로잡았다.

하는데, 감발자족은 발감개를 감고 디딘 자국을 의미한다. ‘갑발자족같은 발자족이라는 표현에서, 역으로 보조관념 갑발자족이 원관념 발자족과 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발자족이 적합하다. 또한 ‘尹군’을 ‘宋군’의 오식(전집5, 339면)일 것으로 보았다. 이전 전집에서는 모두 ‘윤군’으로 표기했다. 이어진 내용에 “나는 宋군의 고독을 빌려다가 순영앞에서 울었다”·“나는 이런宋군의 불행을 이용하여 내슬픔을 立證식혀보느라고”(60면) 등으로 보아 ‘尹군’은 ‘宋군’이 분명하다. 작가의 실수인지 식자공의 오류인지 알 수 없으나 바로잡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원채검노나고”(「지팽이 역사」, 34면), “自殺을 안하고”(「공포의 기록」, 1937.4.25), “尹과姪이 여기서 그들을 사랑하는 夫婦 인것까지도 알고”(「동해」, 231면) 등은 각각 ‘검도’, ‘안하고’, ‘그들’일텐데, 이는 인쇄 과정에서 잉크가 충분히 묻지 않아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실화」에서도 “그날이 그날같습니^ㄴ”(63면)로 끝 글자 ‘다’가 없는데 식자 누락이 아니라 잉크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인쇄 과정에서 글자 오염은 적지 않다. 특히 ‘ㅣ’는 인쇄 시 다른 획에 비해 오염이 심하다. 곧 좌우에 잉크가 번지는 경우인데, 「김유정」에서 “눈을 비비고”(91면)가 영인본에서는 ‘눈을 비바고’, “地面우에다 내뒹이^고”가 ‘地面우에다 내뒹어^고’(93면)로 잉크가 번져 마치 오식처럼 보인다.

2) 탈자(脫字) 교정

최초 발표본에 탈자가 많이 나타난다. 곧 글자가 탈락된 것으로, 단재는 이를 누락된 글자(漏字)라고 했다. 편찬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탈자를 채워 넣었다.

잠은 잘오 적도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가^ㅣ까^ㅣ까^ㅣ까^ㅣ하면서 영^ㅣ잠^ㅣ이^ㅣ오^ㅣ지^ㅣ 않는적도있다.(「날개」, 200면)

빈대가 끊 지않고나왔다(「날개」, 200면)

내가 안해방에 볼 기회가도모지없었다.(「날개」, 203면)

위의 사례들은 글자 사이 공백을 통해 글자의 탈락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탈자가 식자공의 실수로 인해 생기지만, 잉크 점도나 종이 재질의 문제로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기림은 「날개」에서 그러한 부분을 채워넣었다. 첫 번째 ‘잘오 적도’를 ‘잘 오는 적도’(선집, 21면)로 고쳤는데, 이어진 부분에 ‘오지 않는 적도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다음으로 ‘빈대가 끊 지’를 ‘끊이지’(선집, 22면)로 교정한 이래, 이후 전집들에서도 ‘끊이지’로 쓰고 있다. 「날개」에는 “끊이지 않고”(211면), 「종생기」에는 “끊이지 않고”(351면)라는 구절이 있어 김기림의 교정은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볼 기회’의 앞에는 두어 글자 여백이 있는데, 이는 달리 한 글자 정도 탈락되거나 지워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기림은 이를 ‘가볼 기회’로 교정했다. 이상은 “어디로가볼까”(「지주회시」, 232면), “가볼만한데가 없다”(「동해」, 230면)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그 교정은 타당하다.

다음으로 “神經 었을뿐이고뿐이고하였다.”(200면)에서 ‘神經 었을’은 ‘신경이었을’(선집, 22면)로, “두 랍의발소리가 대문~~스~~간쪽으로 사라졌다.”(205면)에서 ‘두 랍’은 ‘두 사람’(선집, 34면)으로 교정했다. 그리고 “수염과머리가 참 산란 였다”(「날개」, 211면)도 한 글자를 채워넣으면 ‘산란하였다’(선집, 49면)가 된다. 이처럼 빈칸이 있는 경우 탈자를 채워넣기는 수월하다. 특히 김기림의 탈자 복원은 정밀하다. 그것은 당시 판본도 많았고, 또한 판본 상태도 현재보다 양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왜냐하면 탈자의 상당 부분은 글자 누락이 아니라 잉크가 제대로 묻지 않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금붕어는 잘 참들졌다. 작은놈은작은놈대로 큰놈은큰잡놈대로 다—싱싱하니 보기좋았다.(「날개」, 214면)

김기림은 ‘잘 참들졌다’를 ‘참 잘들도 생겼다’로, ‘큰놈’은 ‘큰놈’으로 교정하였(57면)으며, 임중국도 이를 따랐다. 그리고 이어령은 전자를 ‘참 잘들 생겼다’(50면)로 하여 ‘도’를 삭제하고, 후자는 그대로 따랐다. 이어지는 ‘다—싱싱하니 보기좋았다’는 표현으로 보아 ‘참 잘들 생겼다’는 교정은 타당하다. 그리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라는 표현으로 보아 ‘큰놈은 큰놈대로’가 적절하다. 이는 오배열과 탈자, 그리고 침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잘 참들졌다’를 오배열 및 오자로 보면 ‘참 잘 생겼다’가 된다. 이상은 「12월 12일」에서 “네얼굴이 그러кет잘생긴”(5회, 123면), “못생긴편으로라도”(5회, 127면)를 썼다.

다만 이상 작품에서 ‘잘들’은 따로 용례가 보이지 않지만, “왔다가도 곶들 가니까”(210면)에서 부사어에 보조사 ‘들’이 결합된 ‘곶들이’ 보인다. 당시 신문에는 “갓다올터이니잘들잊거라”,¹⁶⁾ “잘들사시기바랍니다”¹⁷⁾처럼 ‘잘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 점에서 ‘참 잘들 생겼다’는 구절은 문맥상, 의미상 적합하다.¹⁸⁾ 김기림의 경우 ‘들’을 오식이 아니라 원문의 글자로 본 것인데, 아마도 ‘생’의 자형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도’자마저 탈자로 본 것은 오류이다. 그리고 “내나 안해나 제거동에 로직을부칠필요는없다. 변해할필요도없.”(214면)라는 구절이 있는데, 김기림은 ‘필요도 없다’(58면)로 고쳤다. 이는 한 글자 누락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인쇄과정에서 충분한 교정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

아까 바른쪽으루비켜스란소리는 괜헌소리구 비켜스기전에 자네 시각

16) 김태오, 「두 형제와 호랑이」, 『조선일보』, 1929.10.03.

17) 우용신, 「거인과 소인」, 『조선일보』, 1930.09.19.

18) 하나의 가능성을 남겨두기로 한다. 그것은 ‘참 잘 생겼다 … 다들 싱싱하니’로 ‘들’의 위치 한 줄 건너로 오배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은 「종생기」에서 “상차기를 내어놓아도 다들 어수룩한 체들하고 속느니”(356면)에서 ‘다들’을 쓰고 있고, ‘다—’에서 줄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을訂정 — 그때문에다른물건이되다 바쪽으루빠뚜러져 보이드래두 사랑하
는안해얼굴이 똑바루만보인다면시각의 직능은 그만아닌가(「환시기」, 64
면)

죽도록 흔들어도 구두대로 개는개대로 鋼鐵의位置를변경하는수가없는
것이 딱하기가 짝이없고 또 내가 더럽다.(「동해」, 232면)

足下는 이 꼭뚝 각시같은 語彙한마디를 暫時 말가지고 게서보구려?(「
종생기」, 358면)

임종국은 「환시기」의 ‘바쪽’을 ‘바른쪽’(전집1, 105면)으로 교정했다. 앞
단락에 “왼쪽으루빠뚜러져보이거든”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시각을 교정하
면 ‘바른쪽으루 빠뚜러져 보이’게 된다. 두 번째 ‘구두대로’ 앞에 ‘구두는’
을 더해 ‘구두는 구두대로’로 교정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상이 “작은
놈은작은놈대로 큰놈은큰잠놈대로”라고 썼다는 점에서 그의 교정은 타당
하다. 그리고 “양지전무”(「지주회시」, 242면)를 ‘양돼지 전무’(전집1, 191
면)로, ‘말가지고’를 ‘말아가지고’(전집1, 259면)로 교정하였다. 후자의 경
우 “編輯만 印刷所關係上 李箱이말아보기로한다.”¹⁹⁾에서 ‘말아’를 썼는데,
‘말아가지고’에서 한 글자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는그러면가엽다는데대하야 장적당하다고 생각하는것은무엇이니
무엇을내어거얼가(「지도의 암실」, 110면)

이 의뭉스러운어문들은 眞美文은 쓸듯쓸듯, 絶勝景概는 나을듯나올
듯, 해만보이고 끝끝내 아주 활짝 꼬랑지를 내보이지는않고 그만둔 구렁
이같은 분들이기때문에 그欺瞞術은 한층 더 進歩된것이며,(「종생기」, 360

19) 이상, 「편집후기」, 『시와 소설』 1, 1936.3, 40면.

~361면)

임종국은 ‘장적당하다고’를 ‘가장 적당하다고’(전집1, 205면)로, ‘직 美文’을 ‘오직 美文’(전집1, 265면)으로 글자를 복원했다. 사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상은 “가장하잘것없고 가장우습광스러운”(「12월 12일」 1회, 113~114면),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날개」, 199면) 등 형용사 수식어로 ‘가장’이라는 부사어를 많이 썼고, 특히 「지도의 암실」에서만 ‘가장’을 9회나 썼다. ‘장 적당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의 소통이 불완전하며, 글자 앞의 공백은 한 글자 탈락하거나 지워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장’에 대한 이상의 용례를 보면, 임종국의 복원은 가장 적당하다.

다음으로 임종국은 ‘직’이 ‘오직’의 탈자로 보았다. ‘직’은 그 자체로 의미형성을 하지 못하기에 이 역시 탈자로 보는 것이 맞고, 의미상 ‘오직’이 적합하다. 이상은 “生— 그 가운데만 오직 無限한 기쁨이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²⁰⁾라 하여 비슷한 맥락에서 ‘오직’을 썼다.

그는그의 「포켓트」 속에 들었던 돈을 C간호부머리밧테눛코는 쫓도안이
한선물을 품에 안은 채 첫눈부실거리는 리를 나섰다. (8회, 120면)

전집2에서도 탈자를 복원하였다. ‘부실거리는 리’를 ‘부실거리는 거리’(171면)로 복원한 것이다. 그가 C간호부가 누워 있는 다다미방을 방문하여 돈을 놓고 선물(아이)을 안은 채 거리를 나섰다는 것으로, ‘거리’로 교정하는 것이 알맞다.

20) 조선일보사출판부 편, 「이상서간-기림 대인」, 『여성』, 1939.9, 48면.

3) 도자(倒字) 교정

오식의 종류 가운데 글자의 각도를 잘못 놓아 넘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 곧 전도(顛倒)된 글자가 있게 마련이다. 이상은 창문사에 일하면서 교정을 보았다.

그저 서로 병병이 앉았는데 나는 나대로 校正等屬 일을한다. 가지 가지 符號를써서 내가 校正을보고있노라면 그는 불숙 「金兄! 거 지끔 그 표는 어떻거라는폰구요」 이른다. 그럼 나는 기가막혀서 「이거요, 글짜가 곤두섰으니 바루놓으란 표지오」 하고나서는 또 그만이다.(「김유정」, 91면)

이상은 교정을 보면서 곤두선 글자를 바로 놓으라고 표시했다고 했다. 당시 납활자는 정사각형으로 글자를 바로 놓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실제로 「오감도 시 제6호」에서 ‘그럴극지’가 나오는데, 이는 ‘그럴는지’의 오식이다. ‘는’을 곤두세우면 ‘극’이 된다. 글자를 180도 회전하여 오식한 것이다. 이상 소설에도 글자의 각도를 90도, 180도, 270도 기울여 놓은 것들이 있다.

부리날개 와보니까 그렇나 안해에게는래객이 있었다(「날개」, 210면)

이속에서는 아픈것도 거북한것도 동에 닳지안는 것도 아모것도 업다.
(「공포의 기록」, 1937.5.15)

또 가장 이少女가 싫어하는 몸맵시로 넙적 드러누워서 그냥장정없이 지꺼려대는것이다.(「단발」, 9면)

원문에 ‘부리냥게’의 ‘게’가 90도(ㄱ), ‘거북한것도’의 ‘도’가 180도(ㄷ), ‘지꺼려대는’의 ‘려’가 90도(ㄹ) 기울어져 있다. 이런 경우는 이상이 언급한 것처럼 바로 놓으면 그만이다. 김기림은 부리냥게(선집, 47면), 거북한 것도(선집, 154면), 임종국은 ‘사정없이 지꺼려’(전집1, 57면)로 각각 바르게 했다. 그런데 ‘이’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이/으’의 구분이 자형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元來의敵이 다시금 달라붙으니까 B君은 그냥 두사람을 열러서(「김유정」, 93면)

「그」라는한인간은 이제인간은인간에서넘어야만할고개의최후의침편에 저립하고있다(8회, 131면)

공돈이생겼으니써버립시다(「지주회사」, 241면)

김기림은 ‘달라붙이(이)니까’를 ‘달라붙으니까’(선집, 180면)로 교정했다. ‘인간으(으)인간에서’를 전집2에서는 ‘인간의 인간에서’(183면)로, 전집5에서는 ‘인간이 인간에서’(126면)로 교정했다. 먼저 후자의 경우 ‘으’는 ‘이’를 90도 기울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를 보면 동그라미(○)의 위쪽에 꼭지가 있는데, 이것을 기울이면 꼭지가 오른쪽으로 가버린다. 그러므로 ‘으’는 ‘으’가 아닌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전집5처럼 교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붙이(이)’는 ‘이’의 형태이다. 김기림은 이를 도자로 본 것일까? 이상은 “파잎에 붙이 붙으면?”(「실화」, 55면), “붙이 손가락에 옮겨 붙으릴 적에”(「무제」, 『맥』, 1938.10, 1면)처럼 ‘붙으’를 쓰는가 하면, “울직한심사를하나남은가야금에붙이고”(「지주회사」, 235면), “딱지를 붙이고”(「조춘점묘」, 『매일신보』, 1936.3.20)처럼 ‘붙이’를 썼다. 주어+동사의 경우 ‘붙으’

를, ‘목적어+동사’의 경우 ‘붙이’를 쓴 것이다. 그러면 ‘元來의 敵이’라는 주어에는 ‘달라붙으니까’가 이상의 사용태이고, 또한 일반적인 문법에도 적합하다. ‘이’와 ‘으’의 형태상 유사성 때문에 문선공이 가끔씩 잘못 채자하기도 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 대신 넣기도 한다. 한편 ‘생겼이(이)니(「지주회시」, 241면) 역시 글자를 270도 돌려놓은 것인데, 전집1에서는 ‘생겼으니(100면)로 바로 잡았다. 사실 이/으는 단순한 식자의 오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4) 오첨자(誤添字) 교정

탈자 낙자가 있으면, 첨자도 있게 마련이다. 임종국은 그런 부분에 유념했다.

나는 내가 그윽히陰謀한한바 千古不易의蕩兒(「중생기」, 358면)

저렇게해놓으면어떨떨것이어떤것인지 — 오 — 가는것을보면알겠군(「지주회시」, 236면)

임종국은 ‘陰謀한한바’를 ‘陰謀한바’(전집1, 259면)로 교정했다. 이러한 글자를 단재는 증첨자(增疊字)라 하였는데, 달리 복자(複字)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어떨떨 것’을 ‘어떤 것이’(전집1, 180면)로 수정했다. 비록 글자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글자가 첨가된 것이다. 아마도 문선공이 ‘떨’자를 잘못 넣어 ‘편’으로 바꾸면서 원 글자(떨)를 빼지 않아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지도의 암실」의 “도무소용인인”(104면)에서 마지막 ‘인’자 역시 오첨자로 보인다.

승강대를나릴새에 그는그신사손목을한번잡아보았다 압흔다리를가지고

나리는데 신사의힘을빈다는것처럼 그러나그것은 그가무엇인지유혹하여
 지는것이잇섯기째문이었다 쥐인이고보았스나 그는할아모말도생각나지안
 이하얏다(4회, 125면)

그다지해괴한사건에속살할가요(8회, 118면)

전집2에서는 ‘쥐인이고’를 ‘쥐고’(105면)로 수정했다. 앞 단락에서 “그것
 을바른손아귀에 싹쥐고서 나릴준비를하얏다”(4회, 125면)가 있는데, 이로
 보아 ‘쥐인이고’가 ‘쥐이고’의 침자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은 “뒤이지를손아
 귀에싹쥐이고”(「휴업과 사정」, 116면), “주먹을쥐이고”(「김유정」, 91면) 등
 에서 ‘쥐이고’를 썼는데, 오늘날 표현으로 ‘쥐고’가 적당하기에 전집2에서
 그렇게 고친 것이다. 다음으로 ‘속살할가요’를 ‘속할가요’(전집2, 167면)로
 교정했다. ‘살’ 역시 이 문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으며, 잘못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을소유한아버지의T씨가아니였고 T가씨를소유한아들이엇든 것이다
 업은T씨가 가장그책임을다하야만하고 그충실을다하야만할T씨의주
 인것이었다(3회, 113면)

T씨를 소유한 아들이엇던 것이다(전집5, 166면)

전집5에서는 위의 ‘T가씨를’을 ‘T씨를’로 수정하였다. 이전 전집2·전
 집3에는 최초 발표본대로 ‘T가 씨를 소유한’으로 하였으나 의미상 적합
 하지 않다. 그래서 전집5에서는 한 글자 ‘가’가 잘못 들어간 것을 파악하
 고 삭제하였는데, 이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5) 오배열(誤排列) 교정

식자공은 글자를 잘못 위치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기림은 「날개」에서 글자 배열을 잘못된 것도 찾아내어 바로잡았다.

일종의 채감—그외의다른 아모런리유도는없것이아닐까(「날개」, 203면)
그러순나 다음간 실로세상에도 이상스러운것이눈에띄웠다.(「날개」, 211면)

김기림은 전자를 “이유도 없는 것이”(선집, 31면)로, 후자를 “그러나 다음 순간”(선집, 50면)으로 바르게 배열하였으며, 이후 편찬자들도 그렇게 했다. 전자는 ‘는없’ 두 글자가 서로 바뀐(倒換) 경우이고, 후자는 뒤 구절 ‘순’이 앞 구절로 잘못 들어간 것이다. 앞에서 본 ‘잘 참들겼다’ 역시 ‘잘’과 ‘참’이 오배열된 것이다. 이러한 오배열은 조금만 주의하면 바르게 배열할 수 있다.

그러나二十원을요모조모금물르든그새금한지폐내음새가참그윽할뿐이었다. 요 새주한내음새—요것때문에세상은가만있지못하고생사람을더러잡는다(「지주회사」, 242면)

거더차거든두말고층말게에서나려굴러라.(「지주회사」, 242면)

돌쇠가 혼잣말가치 중거얼리는 말을 소도 알아들었는지(「황소와 도깨비」, 『매일신보』, 1937.3.5)

여러가지재조를 피게되고 마릿습니다 그뿐아못니라 동무들도 다 이저버리고(「황소와 도깨비」, 『매일신보』, 1937.3.6)

임종국 역시 잘못 배열된 글자들을 제 자리에 돌려 놓았다. 그는 「지주

회사]의 ‘금물르든’을 ‘주물르든’, ‘새주한’을 ‘새금한’으로 교정했다. ‘금물르든’의 첫 글자와 ‘새주한’의 둘째 글자가 서로 바뀐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상은 앞 문장에서 ‘새금한 지폐내음새’를 썼고, 또한 「환시기」에서는 “술잔을주물르든”(60면)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두말고충말게’에서 오배열된 두 번째 ‘말’자를 바로잡아 ‘두말말고 충게’로 제대로 배열했다. 또한 ‘중거얼리는’을 ‘중얼거리는’(전집1, 219면)으로, ‘피게되고 마릿습니다 그췌아뭇나라를 ‘뭇피게되고 마릿습니다 그췌 아니라’(전집1, 221면)로 교정했다. 이는 식자공이 ‘뭇’을 한 줄 건너에 놓은 바람에 발생한 오류이다.

나의주린창자를이채고 남는돈의전부를 술과그리고도박으로 소비해바
리고마는것일세(1회, 114면)

첫너름의낮은자우의초목들까지도 피의곤빛을보이고잇섯다(6회, 115면)

전집2에서도 ‘창자를이채고’를 오배열로 보고, ‘창자를 채이고’(30면)로, ‘피의 곤빛을’을 ‘피곤의 빛’(137면)으로 교정했다. ‘채이고’는 ‘채우고’의 고어라는 점에서 ‘주린 창자를 채운다’는 것으로 의미상 적절하며, ‘피곤의 빛’도 마찬가지이다. 이 역시 오배열을 바로 잡은 것이다.

그렇면서도 그는 눈물났이다.(「단발」, 13면)

한편 전집5에서도 ‘눈물났이다’를 ‘눈물이 났다’(370면)로 바로잡았다. ‘눈물났이다’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구어체 대화가 아닌 일반 서술문이라는 점에서 ‘눈물이 났다’가 적당하다. 이처럼 편찬자들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판본에 이르게 된다.

3. 각 판본의 교감 및 어휘 주석

1) 오자(誤字) 인식

최초 발표본에 쓰인 낱말을 이후 편집자가 오자로 인식하여 바꾼 것들이 적지 않다. 이는 오히려 원작을 해친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는 또 회탁의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영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뭉어저드러 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회탁의거리속으로 쉼겨 들어가 지났을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날개』, 214면)

김기림은 ‘회탁의 거리’를 ‘오탁의 거리’(선집, 57면)로 교감하였다. ‘회’와 ‘오’는 형태상 거리가 있어서 단순 오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그는 ‘회탁’이 일반적이지 않는 표현이라 ‘오탁’의 오식으로 간주했을 것이다. 임중국은 그대로 ‘회탁의 거리’(전집1, 45~46면) 썼지만, 이어령은 ‘회탁의 거리’(전집2, 50면)로 교감하였다. 그것이 단순히 회탁과 회탁의 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회탁을 회탁의 오식으로 판단해서 인지 분명치 않다. 이어령도 ‘회탁’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고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당시 최재서는 『날개』를 분석하면서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리는』 灰濁한 世界를 내려다보며 眩氣를 이르는 그에게 다시금 날개를 도쳐서 날아볼 날이 있슬까”²¹⁾라고 하여 ‘회탁’을 썼다.

21) 최재서, 「리아리즘의 확대와 심화-『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여(五)」, 『조선일보』, 1936.11.7.

오죽그들의눈에는 천고의백설을머리우에이고 풍우로더부러니야기하는
련산의봉도라지들도 한낱악마의우상밖에 아모것으로도보히지안는것일세
 (2회, 108면)

「12월 12일」의 위 구절 ‘봉도라지’를 편집자(문학사상·전집2·전집3)들이 ‘봄도라지’로 수정하였다. ‘봉도라지’라는 낱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오식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전집5에 이르러 봉도라지를 ‘산봉우리’(154면)로 주석했다. 당시에도 봉우리(峰)는 “몽오리, 봉두라지, 봉우리라지”²²⁾로 사용되었으며, ‘봉우리’는 봉두라지(강원, 충청), 봉두리(경상, 충남) 등 다양한 사투리가 있다. ‘련산의 봉도라지’는 ‘이어진 산의 봉우리’를 말하는 것으로 문맥에 적합하다.

사람에게는교통이업다 그는지구(地球) 권외에서도그대로학대바닷다
 그의고기를전부조려서애(愛) 라는공물(供物) 을만드러 사람들압혜눈물
 흘니며도보았다 그러나모든것은 더한층 그를학대하고쫓차내엿슬뿐이엇
 다.(4회, 116면)

또한 문학사상과 전집2에서는 ‘교통’을 ‘고통’으로 수정하였으며, 전집3도 이를 수용하였다. ‘학대’, ‘눈물’이라는 낱말 때문에 ‘교통’을 ‘고통’의 오식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이 있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지구(地球) 권외’, ‘쫓차 내엿슬 썩’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교통’, 즉 사람 사이의 의사 소통 내지 왕래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은 「실화」에서 “그렇나 불상한 李箱先生님에게는 이 복잡한 交通을 향하여 빈정거릴 아모런 秘密의材料도 없”(「실화」, 59면)다고 했다. 연이가 S, K교수, 그리고 나를 만나 사랑을 나누며 복잡한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복잡한 교통’으로 표현한 것이다. ‘교통이 없다’는 인간 소외 현상을 일컫는 것으

22) 「조선어표준말모음」(10), 『조선일보』, 1936.11.13.

로, ‘교통’이 맞다.

그는압과오는시간을입은 사람이든지길이든지 거러버리고거더차고싸와
대이고십혔다(「지도의 암실」, 106면)

임종국이 ‘압과오는’을 ‘아과오는’(전집1, 197면)의 오식으로 본 이래, 전
집2·전집3 역시 이를 따랐다. 아마도 ‘압과’와 ‘압과’의 글자적 유사성으
로 인한 오독이거나, 또는 ‘과’를 ‘과’의 오식으로 보아 교정한 것이다. 전
집5는 ‘앞과’(22면)로 썼다. 이상 소설에서 “윈편다리가차^々압하올나왔다”
(「12월 12일」 4회, 118면)처럼 ‘아과’를 ‘압하’(「지팡이역사」, 「지도의 암실
」 각각 1개)로 쓰거나, 또는 아과(「봉별기」 1회)로 썼으므로, ‘압과’는 ‘앞
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공간)과 시간(사람, 길)과 싸우고 싶었다는
것은 이상의 독특한 사유를 보여준다.

그는하로치씩만잔뜩산(生)다. 이런복음에곱신히그는 덩어리(속지말라)
처럼말(言)이없다.(「지주회사」, 230면)

김기림은 ‘덩어리’를 ‘병어리’(76면)의 오식으로 교정하였는데, 의미의
인접성에 따라 병어리·말이 없다로 본 것이다. 임종국 역시 이를 따랐다.
이후 전집들에서도 ‘덩어리’로 표기하였지만 ‘병어리’의 오식으로 간주했
다. 그런데 이상은 「김유정」의 “앞어서는 바위덩어리처럼 말이없다”(19
면), 「날개」의 “나는속이 무명헌겹이나메물겹질로 땡땡찬 한덩어리벼개와
도같은 한벌 神經 었을뿐이고뿐이고하였다”(200면) 등에서 덩어리를, 「12
월 12일」의 “이세상에병어리나 귀떡어리처럼 — 엇췌든 그런병신이차라
리나을것이야”(5회, 124면)에서 병어리를 썼다. 덩어리는 바위덩어리처
럼 말이 없는 사물로 형상화되는데, 무명헝겂이나 메밀겹질로 땡땡 찬
‘한 덩어리 벼개’는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를 연상시킨다. 흔히들 ‘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말이 없다'고 한다. 그에 반해 병어리는 병신으로 설 명된다. 이상은 이 작품에서 마유미를 “고기덩어리”(237면)에 비유했다. 그런 점에서 바위, 배개, 보릿자루처럼 말이 없는 인간을 ‘사물화된 존재 인 ‘덩어리’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머처럼 내 虛無한歲月 가운데 閑却되어있는 奇岩 내 코잔등이를 좀 만이적 맞이적했다거나(「중생기」, 349면)

임중국은 ‘머(머)처럼’을 ‘모처럼’(239면)으로 옮겼다. ‘모’를 270도 기울 이면 ‘머’가 되는데, 식자공이 ‘머’와 ‘모’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식자한 것 으로 본 것일 테다. 그런데 ‘머’는 ‘모(모)’의 형태와는 다르다. ‘모’으로 시작하는 글자는 ‘모’의 첫획(왼쪽) 위에 꼭지가 있어 ‘머’를 90도 눕히더라도 ‘모’의 모양과 차이가 있다. 당시 ‘모처럼’은 ‘머처럼, 모처럼, 모초림, 모초롬’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것은 ‘고’와 ‘기’가 발음상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나 는 것²³⁾으로 보아, ‘머처럼·모초림·모초롬’은 ‘모처럼’의 이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곧 ‘머처럼’의 규범 표기는 ‘모처럼’이며, 그 의미는 ‘일부러 버뜨거나 마음을 먹고’, 또는 ‘애써서 오래간만에’라는 것이다.

하나가티 내눈에비치는女人이라는 것이 그저 쫄업시 輕兆浮薄한 음난 한妖物에 지나지 안는것이업다.(「공포의 기록」, 1937.5.8)

이房에는 가을이 이렇게 지뒀것만 菊花한송이 裝飾이었다.(「실화」, 57 면)

23) ‘모처럼’은 이 작품이 나온 1937년 한해에만 110회가 나올 정도로 지배적이다. 1920-1940년까지 ‘머처럼’은 25회(1927·1928 각 1회, 1929 5회, 1932·1935·1938·1939 각 2회, 1934 1회, 1936·1937·1940 각 3회), ‘모초림’ 4회(1924·1925·1936·1938 각 1회), ‘모초롬’ 3회(1932 1회, 1936 2회) 등이 나타난다. 후자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菊花한송이도 없는 房안을 휘- 한번 둘러보았다.〔실화〕, 60면)

저의 히말견살의魅力이 이렇게 다섯달동안이나 놀고없는것은 참 무엇이라고 말할수없이 아깝습니다〔중생기〕, 351~352면)

흰 바지저고리에 古銅色다님을 다치고 차림차림히 제법 異色이었다.〔중생기〕, 353면)

김기림은 「공포의 기록」의 ‘안는 것이 없다’를 ‘않는 것이었다’(선집, 146면)로 교정하였으며, 임종국은 이를 수용하였지만, 이어령은 “안는 것이 없다”(선집2, 160면)고 하여 최초 발표본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12월 12일」에 이와 유사한 “모든것이 다 하나도무섭지만안한것이없다”(4회, 115면), “현상에 지나지안는 것이었다”(6회, 121면) 등을 통해 대교 및 이교를 할 수 있다. 전자는 이중부정이고, 후자도 의미상 이중부정으로 ‘현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말이다. 위의 문장도 ‘음란한 요물’을 강조하는 말로, ‘음란한 요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음난한妖物에 지나지 안는 것이었다’가 맞다.

다음으로 「실화」의 부분인데, 임종국은 ‘裝飾이었다’를 ‘裝飾이 없다’(선집1, 75면)로 교감했다. 그러나 이후 선집2에서 ‘裝飾이었다’(72면), 선집3·선집5에서 ‘장식이였다’(361면·159면)로 썼다. 그것은 원문을 중시한 조치이지만, 임종국이 교정한 까닭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다. 선집2에서는 그냥 임종국이 오식한 것으로 보았고, 이후 선집들은 최초 발표본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런데 3단락 끝 ‘이房에……菊花한송이 裝飾이였(없)다’가 5단락 첫 부분 ‘菊花 한 송이도 없는 房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임종국의 교정은 옳다.

마지막으로 「중생기」에서 ‘다섯달 동안이나 놀고 없는’이라는 말을 선집마다 그대로 옮겼다. 그러나 ‘다섯달이나 놀고 있는’이 옳다. 이상은 「지도의 암실」에서 “그는놀고잇섯다”(107면)로 쓰고 있는데, 이를 전자와

대교해보면 ‘놓고 잇는’으로 교정하는 것이 옳다. 또한 ‘차림차림히 제법 異色이었다’를 임중국은 “차림차림이 제법 異色이었다”(전집1, 247면)로 교정했다. 이어령은 ‘異色이었다’(전집2, 199면)로 원문대로 썼다. 이상은 「조춘점묘」에서 “유리에 줄이 짝짝 간것이 제법 近視들이다”라고 썼다.²⁴⁾ 이상에게 ‘차림차림이 제법 異色이 있다(S+C(s+c))’라는 표현보다 ‘차림차림이 제법 異色이었다’(S+C)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

「先生님 先生님 — 이 귀염성 스럽게 생긴 妍이가 어찌녁에 무엇을했는지 알아내면 용하지」

黑板우에는 「窈窕淑女」라는 額의 黑色이 淋漓하다.

「先生님 先生님 — 제입설이 왜요렇게 파르스레한지 알아마치신다면 참 용하지」(「실화」, 59면)

이것은 꼬-리키의「나드네」구슬픈노래, 이노래를 나는 모른다.(「실화」, 62면)

위의 ‘窈窕淑女’를 전집1에서는 그대로, 전집2와 전집3에서는 ‘窈窕淑女’로 바꾸었으며, 전집4에서는 다시 ‘窈窕淑女’로 하여 “요조성을 절취해 다니는 여자”(363면)라는 주석을 달았다. 전집5 역시 “정숙함을 몰래 훔친 여자”(351면)로 주석했다. 그런데 앞뒤 맥락을 보면, R대학 영문과에 재학 중인 연이는 교문만 나서면 S·K·나(이상)와 사랑놀음을 하는 야옹의 천재로 변신한다. 요조숙녀는 『시경』 「관저」의 “窈窕淑女 君子好逑”에서 온 것으로, 군자의 좋은 짝이란 말이다.²⁵⁾ 교실 칠판 위 액자는 교훈 따위를 적는 곳으로 ‘말과 행동이 품위가 있으며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가 되자!(窈窕淑女)’가 적합하다. 식자공이 ‘窈窕淑女’와 자형의 유사성으로 인해 ‘窈窕淑女’로 오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²⁶⁾

24) 이상, 「조춘점묘」, 『매일신보』, 1936.3.26.

25) 왕요남, 신응운 외 역, 『주석학개론2』, 한국고전번역원, 2014, 257~258면.

아울러 전집2에서 ‘꼬-리키의 「나드네」’를 ‘고리키의 나그네’(80면)로 수정했으며, 전집3도 이를 수용했다. ‘나드네’라는 우리말이 없으니까 오식으로 간주하고, ‘나그네’로 고친 것이다. ‘나드네’는 ‘밑바닥’을 뜻하는 러시아어로, 고리키의 희곡 제목이다. 편찬자는 ‘나드네’를 잘 몰라 오식으로 간주하고, 형태상 가까운 ‘나그네’로 바꾼 것이다.²⁷⁾

이제부터는 최초 발표본에 오식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교감할 차례이다.

그가물러가잇슴즉이생각하는데로 차례로차례안이로물너버리닛가(「지도의 압실」, 112면)

그는 또 그의 그「윗티숨」과 「아이로니」를 아모렇게나 휘두르며 酸鼻 할煙幕을 피는것이였다. 또 가장 이少女가 싫어하는 몸맵시로 넉적 드러누어서 그냥장정없이 지꺼려대는것이다.(「단발」, 9면)

위 인용문에서 ‘안이(이)로’를 전집1과 전집2, 전집3과 전집5에서는 ‘아니로’로 옮겼다. 여기에서 ‘이’는 같은 면 ‘안이(이)한’, ‘단편들이(이)’의 ‘이’와 같고, ‘것으(으)로’, ‘물으(으)면’의 ‘으’와 형태가 다르다. 그러나 이는 외형상 비슷하여 문선공이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이’와 ‘으’의 오식 가능성을 두고 보면, ‘안이로’는 ‘안으로’의 오식이 분명하다. 이상은 “그가

26) 이상소설 최초 발표본에서 한자음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독죄(贖罪)→속죄(贖罪)(「12월 12일」), 花瓣(화판)→화면(「공포의 기록」·「환시기」), 敗北者→패북자(「12월 12일」), 敗北→패북(「단발」)이, 오식은 披歷→披瀝(「동해」), 撰擇→選擇, 重在→重压(=壓), 敎食→敎養(「공포의 기록」), 逆說의→逆說的, 排戰→挑戰, 括目→刮目, 誘或→誘惑(「단발」), 箕出→算出(김유정), 迫憶→追憶, 外奪→外套(「실화」), 다섯字→ 다섯字, 西歷→西曆, 光是→亦是, 親戚→親戚(「종생기」) 등이 있고, 잘못 배치한 것은 毒餘→餘毒(「종생기」) 등이 있다.

27) 한편 전집2에서는 「종생기」의 “滿二十六歲와 三個月을 마지하는 李箱先生님이어!”(363면)를 “滿二十六歲와 三十個月…”로 잘못 옮겨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한 김윤식의 「「종생기」의 세계」(『이상 연구』, 문학사상사, 1987) 역시 오류를 낳았다.

그의생에대한신조의안으로갑히들어가면”(「12월 12일」 6회, 112면), “자근 어머니는 나를 보드니 열린 안으로 드러가버린다”(「공포의 기록」, 1937.5.1)처럼 ‘안으로’를 곧잘 썼다.

또한 전집1에서는 ‘장정없이’를 ‘사정없이’(전집1, 57면)로 교정했다. 임종국은 ‘장정없다’는 말이 이 구문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장’을 오식으로 간주하고, ‘아모렇게나 휘두르며’라는 말과 연결지어 본 것일 터이다. 그런데 이상은 「공포의 기록」에서 “무작정 그리 들어스려는것을 壽君이 아예 말니는 것이다”처럼 무작정을 2회나 썼다. 『조선일보』에는 “그는 작정업시 길거리를 거뒀다”(1934, 1회)와 같은 표현이 보이는데, ‘작정업시’는 1923년 1회(동아), 1932년 2회(동아, 조선), 1934, 1937, 1938년 각 1회 용례가 보인다. ‘아모렇게나 휘두르며’와 ‘작정없이 지켜려대는 것’은 의미의 유사성 및 인접성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장정없이’는 ‘작정없이’의 오식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오죽그들형테는 그도M군을사이로하야 M씨의소식을어더알고 T씨도 M군을사이로하야 그의생사를알수잇는흐릿한상태가 기리게속되여왔는 것이다.(1회, 111면)

이전 전집들이 모두 ‘M씨의소식’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그런데 이는 ‘G-M-T’의 소통 구조로 G(×)는 M을 중개자(사이)로 하여 T의 소식을 알고, 반대로 T는 M을 중개자로 하여 그의 소식을 안다는 것이다. 곧 ‘M씨의 소식’은 이교를 통해 ‘T씨의 소식’이 된다. 이것이 식자공 오류인지, 이상의 착각인지 불명확하다. 「김유정」에서 B군을 S군으로, 「환시기」의 宋군을 尹군으로 쓴 것처럼, 이 역시 인물의 오류이다.

魚族이나 다름없이 몽툰한체 그 이 두 남자를 건드렸다 말았다 한 손은 숨씨있게놀려

DOUGHTY DOG

스프링을 감아주고있다. 이것이나로서 성화가 날 일이 아니면 罪 씨인 이다. 아—아—(「동해」, 232면)

전집5에서는 ‘씨인’을 찐(sin)(298면)으로 보았다. 이 문맥에서 ‘씨인’에 해당하는 우리 말은 찾기 어렵다. 이 작품에는 모던뽀-이(226면), 로직(229면), 슬럼프(230면), 듀레스·느(스)뽀(233면), 때쉬(235면), 쿨(238면) 등에 모두 한 칸 띄어서 조사를 썼는데, ‘씨인 이다’도 마찬가지로 접에서 외국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씨인’이라는 말이 생경하고, 이상의 다른 작품에서도 용례가 없는데, 이 경우 오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상은 「혈서삼태」, 「19세기식」에서 ‘죄’를 언급했다.

萬一 내게 안해가 있고 그 안해가 實로 요만 程度의 간음을 범한 때 내가 무슨 어려운 方法으로 곧 그것을 알 때 나는 『간음한 안해』라는 뚜렷한 罪名 아래 안해를 내어쫓으리라.(「19세기식」, 전집2, 127면)

삼팔헨커치프 한복판에다가 선명한 隸書로 ‘罪’ 이렇게 한 자를 썼을 따름 물론 落款도 없었다.²⁸⁾

「동해」의 임이는 윤과 ‘간음한 아내’이다. 「19세기식」에서 화자는 ‘『간음한 안해』라는 뚜렷한 罪名 아래 안해를 내어쫓으리라’라고 했다. 그리고 「혈서삼태」에서는 ‘罪’ 이렇게 한 자를 썼을 따름 물론 落款도 없었다’고 했다. 이상은 「파칩」에서 “남보는데서 「씨인」 을하지말고”²⁹⁾, 「실낙원」에서 “그難解한文學의 끝머리에 「씨인」 이없다”³⁰⁾라고 했다. 후자는 저자의 기명(記名), 낙관과 같은 의미이지만, 전자는 ‘몸짓이나 눈짓 따위로

28) 이상, 「혈서삼태」, 『신여성』, 1934.6, 79면.

29) 이상, 「파칩」, 『자오선』, 1937.11, 50면.

30) 이상, 「실낙원」, 『조광』, 1939.2, 182면.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일, 또는 그런 동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포수가 타자 몰래 투수에게 사인을 보내면, 투수가 이를 따르게 된다. '죄 싸인'은 '죄 싸인'의 오식일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임(嬪)이는 두 남자(윤과 나)를 건드렸다 말았다 하며, 한 손으로는 장난감 개의 스프링을 감아주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나오서는 '성화 날', 곧 답답하고 애가 타는 일이 아니면, '罪 사인'(sign), 죄의 표시라는 것이다.

2) 탈자(脫字) 인식

한편 탈자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인류가아즉만들지아니한글자가 그자리에서이랬다 저랬다하니무슨암시이나가무슨까닭에 한번넓어지나가면 도무소용인인 글자의고정된기술방법을채용하는 흡족지안은버릇을쓰기를버리지안을까를그는생각한다 ... (중략)... 한번지나간것이 하나도쓸데없는것을알면서도 하나를버리는 은웃을그도역시거절치안는지그는그에게물어보고싶지안타 지금생각나는 것이나 지금가지는글자가있다가가즐것하나 하나 하나 하나에서모도식못 쓸것 인줄알았는데외지금가지느냐안가지면 고만이지하야도 별서가져버렸구나(「지도의 암실」, 106면)³¹⁾

임종국은 「지도의 암실」의 위 구절 '도무소용인인'을 '그도 무소용인'으로 고갠했다. '도'가 문맥상 불완전하여 한 글자 탈자로 이해하고, '그'를 넣어 완성한 것이다. 그가 원문을 복원하고자 한 고심과 노력이 여실히 드러난다. 전집2·3에서는 '도무소용인인'으로, 전집5에서는 '도무소용인'(22면)으로 표기했다. 이 역시 '장적당한'처럼 한 글자 탈락으로 볼 수

31) 비구, 「지도의 암실」, 『조선』, 1932.3, 106면.

있다. 임종국이 한 글자 오식으로 보고 교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문장에 ‘그는’이 후술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여기에서 ‘하나도 쓸데없는 것’, ‘모도식 못쓸 것’을 전제하면 이는 ‘모도 무소용인’이 된다. ‘쓸데없다’, ‘못쓸 것’은 ‘무소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도’, ‘모도식’(모두 씩)은 ‘모도(모두)와 연결된다. 이상은 이처럼 문맥의 앞뒤에 의미 해독의 단서를 두었기에 이교를 통해 탈자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도도모지보산자신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일이었는데 그러타면단
할사람이라고는 아모도업지안이하나(「휴업과 사정」, 125면)

위 구절에서 ‘단할’은 전집2·전집3에서도 ‘단할’로 실렸다. 이는 ‘당할’의 오식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며, 전집5에서는 ‘당할’(46면)로 보면서도 주석에서는 ‘단할’(다닐), ‘탄할’, 또는 ‘당할’로 설명했다. 그런데 이상소설에서 ‘다닐’은 ‘쌀아단일’(「12월 12일」)처럼 ‘단일’로 표기되며, 또한 원문 ‘단할’(단할)은 ‘표할’(할, 124면), ‘노할’(할, 124면)과 같은 ‘할’자이다. 여기에서 ‘단할’은 문맥상 어의상 불완전하며, 곧 탈자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래서 앞의 구절과 연결시키면 ‘판단하기’, ‘판단할’로 이어진다. 같은 작품에서 “어린아해는불행고”(120면)에서도 한 글자(하), “숲흔마음도잇기는 잇것이다”(125면)에서도 한 글자(는)가 탈자되는 등 탈자가 여러 군데 보인다. 이상은 「집팽이역사」에서도 “어는편이더어엿썸가를판단할작정인모양으로”(35면)라고 하여 ‘판단할’을 썼다.

3) 오배열 인식

기존 편찬자들은 이상 작품에서 오배열 글자를 잘 찾아내어 교감을 했다. 그런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 있다.

넓고난다음에는 마음가운데에이니는분노와모욕의념을이기지못하여 반
듯이남편SS에게늑박하리라(「휴업과 사정」, 117면)

위 문장에서 ‘이니는’은 모든 전집에 그대로 실렸다. 만일 의미상 ‘니는’
이나 ‘이느’이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무언가 불완전하다. 이 경우 오자나
첨자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글자 첨자인가? 이상은 “닐어났다”,³²⁾
‘닐어’(「12월 12일」 3회, 「휴업과 사정」 1회, 「지팡이역사」 2회) 등 ‘일어나
다를 ‘닐어’나다로 썼다. 그러므로 ‘일어나는’의 ‘이느’은 ‘니느’이 된다. 그런
데 「휴업과 사정」은 수많은 낱말을 연음화 하여 표기하였는데, ‘내이며’(내
며), ‘대이고’(대고), ‘지잇고’(짓고), ‘자악야’(작아), ‘머언’(먼) 등이 그러하
다. ‘니느’을 연음화시키면 ‘니이느’이 되고, 그렇다면 ‘마음 가운데 니이느’
인데, ‘이니느’은 오배열된 것이다.

4) 띄어쓰기, 마침표 인식

이상은 “小霞가 띄 普遍的인 熱情을 얻는 斷片으로 四捨五入式 終結을
지여버릴 수 있는 能한 手腕이 있는데 反對로 나에게는 倫敦市街에 窺
시 繼續되는 안개와 가티 거기조차 「컴마」나 「페리어드」를 찍을 才操가
있습디다”(「혈서삼태」, 80면)라고 하였다. 단편의 글도 쉽게 종결짓지 못
하고, 쉼표(컴마)나 마침표(피리어드)를 찍을 재주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겸양의 표현이지만, 달리 쉼표·마침표에도 매우 신경을 썼다는 말
이다. 이는 띄어쓰기(장구)나 문장 마무리(종결)와 관련이 있다.

시계가세시를쳤다. 보산의오후가탸다.(「휴업과 사정」, 120면)

32) 이상, 「보통기념」, 『월간매신』, 1934.6, 25면.

위 구절에 대해 김성수는 ‘보산의 오후 같았다’로 독해했다.³³⁾ 사실 띄어쓰기, 장구의 인식에 따라 ‘오후가 탔다’, 또는 ‘오후 같았다’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12월 12일」에는 ‘갓탔다가 1회, ‘갓햏다가 6회 나오며, 후자는 「지도의 암실」·「휴업과 사정」에 각각 1회가 나온다. 1932년 뉴스라이브리기에 ‘같았다’를 의미하는 ‘가탔다가 『동아일보』 18회, 『조선일보』에 6회가 나온다. 또한 「12월 12일」에 ‘갓갓햏다’는 5회, 「휴업과 사정」에 1회가 나타나며, 수필 「동경」에는 “喫茶店 같았다”(『문장』, 1939.5, 141면)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이 ‘…만 갓햏다’, ‘…와 갓햏다’도 썼지만, 명사 뒤에 같았다는 쓴 점을 보면 ‘오후 같았다’와 같은 표현은 그에게 어색하지 않다. 이상의 문학에 ‘갓탔다, 갓햏다, 같았다’ 등 여러 표기 형태가 나오는데, 이로 볼 때 ‘같았다’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넌들 손을 대일수가있나, 내버려 두었다. 가도 참사다 참사다 못해서 『
거 뭘 찾누?』(「동해」, 224면)

겨울乃 꾸겨박질러두었든것을 부득부득 끄집어내어다. 十五分間洗濯
所로가지고가서 멀쩡하게만들었다(「종생기」, 353면)

한편 「날개」에서 “안해의 얼굴에는우습이 없다나. 눈썹눈을부비고”(205면)가 나오는데, 이는 마침표의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김기림부터 ‘…없다. 나는…’(35면)로 수정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위의 ‘내 버려두었다. 가도’는 전집에서 모두 그대로 옮겼다. 그런데 이상은 “사람 이얏온다, 설사 왔다가도 곱들 가니까 좋다”(「날개」, 210면), “裝鍊, 再湯 다시 써먹는다. 눈썹로만 알았다가도 또 내게 혼나는 경우가있으리라”(「종생기」, 355면)라고 하여 문장의 연속으로 ‘…가도’를 썼다. 마침표가 잘못 들어간 것으로, 앞의 용례처럼 ‘…두었다가도…’로 붙이는 것이 이상의

33) 김성수, 『이상소설의 해석』, 태학사, 1999, 125면.

용법이다.

두 번째 문장의 경우 임종국은 위 문장에서 ‘끄집어내어다 十五分間(전집1, 247면)으로 하여 마침표를 지웠으며, 이어령은 ‘끄집어내었다. 十五分間(전집2, 199면)으로 하여 한 글자를 교정(어→있)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글자 오식으로 볼 것인가, 마침표 오류로 볼 것인가?

두사람은情死를約束하고 自動車로 漢江人道橋教 건너까지나갔다 自動車는돌아돌아갔다.〔혈서삼태, 82면〕

魚族이나 다름없이 몽푃한채 그 이 두 남자를 건드렸다 말았다 한손은 숨씨있게놀려 DOUGHTY DOG 스프링을 감아주고 있다.〔동해, 273면〕

「혈서삼태」의 경우 첫 발표본에는 마침표가 없는데, 전집2에서는 “...건너까지 나갔다. 자동차는...”(82면)로 하였다. 이는 ‘지나갔다(가) 자동차는 ... 도로 돌아갔다’라는 말이다. 「동해」의 경우에는 모든 전집에서 ‘... 말았다 한 손은...’으로 했다. 최초 발표본처럼 마침표를 넣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끄집어내었다’에서 문장이 그친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어다(가) 十五分間 洗濯所로 가지고 가서’로 보는 것이 옳다.

5) 동음, 유사음 및 동형어(同名異字)의 주석

이상은 표기법이 제대로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품을 써서, 표기에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

그량삼년외국생활을격거보든그식당이였다.(6회, 117면)

밑줄 친 내용을 전집2·전집3·전집5에서는 ‘그냥 삼년’으로 옮겼다. ‘그량’과 ‘그냥’의 음가적 유사성, 또는 ‘그량을 ‘그냥’의 오식으로 간주한 것이

다. 그런데 이상은 “그냥내버려두었세요”(4회, 120면)처럼 ‘그냥’을 썼으며, ‘랑편’, ‘랑미(兩眉)간과 ‘이삼년동안’, ‘이삼일’ 등을 썼다. 당시 신문에는 “兩三의 西洋女子가”,³⁴⁾ “兩三年이나 假教場으로쓰든”³⁵⁾처럼 1931-1935년 사이 ‘양삼년’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에 16회의 용례가 보인다. 당시 ‘양삼년’은 일반적으로 쓰이던 표현으로, ‘그랑삼년’은 ‘그 兩三年’을 말한다.

잊지안은동안갓치잇든 그들사이엿것만은 그로서는실노 처음보는일이
요(12월 12일, 7회, 113면)

만일지금 이그간호부가타고잇는객차의고간이그적에그가타고오든 그고
간일뿐만아니라 그자리까지도역시그갓튼자리엿다하면 그것은 또한 잊지
나설명하려느냐?(「12월 12일」 9회, 106면)

‘잊지 안은’의 ‘잊지’를 전집2와 전집3, 전집5에서는 ‘잊지’로 썼고, 전집4에서는 ‘있지’로 보았다. 후자는 「12월 12일」에서 ‘잊지’가 일반적으로 ‘있지’로, ‘낮지’(6회)가 ‘잊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네의지금한말 언제라도잊지안이할것일세”(1회, 111면), “그가T씨의집을찾기는결코잊지는안앗다”(8회, 129면)처럼 ‘잊지’가 ‘잊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낮지와 잊지는 글자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그런 측면에서 ‘잊지 안은’은 ‘잊지 않은’으로 교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전집2에서는 ‘그적에’를 ‘그저께’로 옮겼다. 그런데 ‘그적에 타고오던’은 ‘1년전 12월 12일 타고 오던’을 말한다. ‘그적에’는 ‘그때에’를 예스럽게 이르는 부사어이다. 이상은 “그적게보다 그스적게보다 여위고 어적게는 그적게보다 여위고”(「공포의 기록」, 『매일신보』, 1937.5.15), “그적게新

34) 한용운, 「명사십리행6」, 『조선일보』, 1929.8.20.

35) 이영희, 「기행 진명성지(鎭溟城址)를 차자서(上)」, 『조선일보』, 1931.12.4.

聞을찌저버린”(『산촌여정』, 『매일신보』, 1935.9.27)을 썼는데, ‘그적게’는 ‘그저께’, ‘그스적게’는 ‘그그저께’를 뜻하는 명사이다.

거미— 분명히그자신이거미였다. 물뿌리처럼야외들어가는안해를빨아 먹는거미가 너 자신인것을깨달아라.(『지주회시』, 233면)

동이 흰— 히 터왔다. 복도로 유령같은 입원환자의 발자취소리가 자저 간다. 수도는 썩—기침은 쿨룩쿨룩—어린애는으아—(『환시기』, 62면)

전집4는 물뿌리를 ‘물에 떠있는 식물이 물속에 내리고 있는 뿌리’로 설명하였지만, 전집5는 ‘물뿌리=물부리=빨부리’, 곧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으로 설명했다. 물뿌리는 기의(자의)가 다르지만, 기표(자음=자형)는 같은 글자(異身同名)이다. 이상은 “연필처럼야외가는 것”(『지주회시』, 232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로 볼 때 물뿌리는 연필과 형태상 유사한 것이 된다. 당시 신문에 “물뿌리(名)煙竹咬齧”이라 했는데,³⁶⁾ 여기에서 물뿌리는 담뱃대로 당시 굵기는 연필보다 약간 굵고, 길이는 조금 짧은 것이 유행했다. 이상은 「실화」에서 ‘과잎’을 3군데 썼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물뿌리’이다. 형태상의 비유로 보아 연필과 유사한 담뱃대를 말한다.

또한 전집5에서 ‘자저간다’를 ‘점점 횡수가 들어가다’로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자저간다’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점점 횡수가 늘어난다는 의미, 다른 하나는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로 서로 상반된다. 아직 병원 문이 열리기 전 깊이 잠들어가는 모습이라면 소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데, 전집5의 설명처럼 동이 트고 환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내용이 수도 소리, 기침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등 잠에서 깨어나 분주해지는 모습을 그린다는 점에서 ‘횡수가 늘어난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처럼 주석 연구를 통해

36) 『조선어표준말모음』(4), 『조선일보』, 1936.11.6.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텍스트 해석에 이를 수 있다.

4. 마무리

이상은 다양한 문자 실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표기했다. 그의 낱말들은 실로 다양하며, 그래서 의미도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 우선 동일 낱말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여태껏이 엽대껏·엽댓껏·엿째껏·여태껏, 입술이 낚술·입설·입살·입술, 이튼날이 이튼날·일은날·잇흔날·있흔날, 잊지가 낫지·잊지·잊지 등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대상이지만 다른 표기가 나타난 경우로 겨울·겨울, 나희·나히, 날어·일어, 머리·마리, 문주·문지, 어는·어느, 조희·조히·조이, 한울·하날·하늘, 한번·한벌·함번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표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경우로 잊지(잊지·잊지), 안는(안는·안는) 등이 있다. 이 경우는 당시 한글맞춤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또한 우리 말이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채롭다.

아울러 이상 문학에는 문선과 식자, 인쇄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들이 일어났다. 글자가 잘못 배열된 경우, 글자가 90도, 180도, 270도 회전하여 식자된 것들도 있으며, 잉크의 점도 또는 종이의 재질에 따라 글자 일부만 인쇄되거나 아예 낙자된 경우, 획이 더 들어가 다른 글자처럼 보이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전 전집 편찬자들은 그러한 부분에 주목하고 글자를 교정하였다. 그래도 김기림이나 임종국, 이어령, 김주현, 권영민 등의 편찬자들에 의해 새로운 판본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잘못 교정되거나 제대로 교정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아울러 낱말에서 구절, 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석들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이상의 문학이 더욱 풍부하게 해석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잘못 해석되거나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부분

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낱말들에 대한 교감과 주석 작업을 하였다. 이전 전집 편찬자들이 했던 오자, 탈자, 도자, 오침자, 오배열 등의 교정 문제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였으며, 주석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이전 편찬자들이 ‘회탁’을 ‘오탁’ 또는 ‘회략’으로 보았는데, 이는 흐리고 탁하다는 ‘회탁’이 맞다. 아울러 봉도라지(봉우리)를 봄도라지로, 그량삼년(그 2-3년)을 그냥 삼년으로, 그적예를 그저께로, 교통을 고통으로 바꾸어 잘못된 해석을 넣기도 하였다. 그리고 ‘압과(앞과)’를 ‘아과’, ‘덩어리’를 ‘병어리’로 보는 것도 오류일 것이다. 한편 ‘窈窕淑女’는 ‘窈窕淑女’, ‘장정업시’는 ‘장정업시’, ‘씨인’은 ‘씨인’의 오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무소용인’은 ‘모도무소용인’의, ‘단할’은 ‘판단할’의 탈자로 판단된다. ‘이니스’는 ‘니이’의 오배열로 보이며, 물뿌리는 빨부리를 ‘자저간다’는 ‘휫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본고에서의 주석학 작업은 크게 판본의 오류 교감과 어휘에 대한 심층적 해석으로 이뤄졌다. 우선 판본의 오류를 교감하는 것은 경전뿐만 아니라 문학 연구에서도 필요하다. 온전한 텍스트가 연구의 토대가 되며, 잘못된 판본은 연구의 오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어휘에 대한 정확한 주석으로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 해석에 이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 소설을 중심으로 주로 판본 오류를 교감하였으며, 일부 어휘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시도했다. 이상 문학에서 논란이 많은 어휘 주석은 고를 달리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학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와 소설』, 『여성』, 『월간매신』, 『자오선』, 『조광』, 『조선』, 『朝鮮と建築』
- 권영민 편, 『이상전집』(전4권), 태학사, 2013.
김기림 편, 『이상선집』, 백양당, 1949.
김성수, 『이상소설의 해석』, 태학사, 1999.
김윤식, 『이상 연구』, 문학사상사, 1987.
김윤식 편, 『이상문학전집2』, 문학사상사, 1992.
김주현 주해, 『개정정보이상문학전집』, 소명출판, 2025.
김주현, 『이상소설연구』, 소명출판, 1999.
김주현, 『실험과 해체, 이상 문학 연구』, 지식산업사, 2014.
신채호, 『조선사연구초』, 조선도서주식회사, 1929.
예기심, 신승운 외 역, 『교감학개론』, 한국고전번역원, 2014.
왕요남, 신승운 외 역, 『주석학개론』(전2권), 한국고전번역원, 2021.
이어령 편, 『이상소설전작집』(전2권), 갑인출판사, 1977.
임종국 편, 『이상전집』(전3권), 태성사, 1956.
임종국 편, 『이상전집』, 문성사, 1966.
한용운, 『한용운전집』(전6권), 신구문화사, 1973.
- 김기림, 「고 이상의 추억」, 『조광』, 1937.6, 312~315면.
김태오, 「두 형제와 호랑이」, 『조선일보』, 1929.10.03~10.9.
신채호, 「삼국지 동이열전 교정」, 『동아일보』, 1925.1.16~26.
우용신, 「거인과 소인」, 『조선일보』, 1930.09.17~10.1.
이어령, 「이상문학의 출발점」, 『문학사상』, 1975.9, 282~284면.
이영희, 「기행 진명성지(鎭溟城址)를 차자서」, 『조선일보』, 1931.12.4~6.
조선일보사출판부 편, 「이상서간-기림형」, 『여성』, 1939.6, 82~83면.
최재서, 「리아리즘의 확대와 심화-『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여」, 『조선일보』,
1936.10.31~11.7.
한용운, 「명사십리행6」, 『조선일보』, 1929.8.14~24.

<Abstract>

For the Exegetics of Yi Sang's Fiction

Kim, Ju-hyeon

Yi Sang employed not only experimental uses of language but also a wide variety of orthographic forms in his works. His lexical choices are extraordinarily diverse, making their meanings difficult to determine with certainty. The same word appears in various forms, the same object is expressed differently, and one signifier has different meanings. This phenomenon can be attributed in part to the lack of standardized Korean orthography at the time and to the phonetic nature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In Yi Sang's works, numerous errors occurred during the processes of manuscript selection, typesetting, and printing. These include cases where characters were misarranged, partially printed, or entirely omitted, as well as instances in which additional strokes caused characters to resemble different ones. Previous editors of collected editions paid attention to such issues and attempted to correct the text. However, some passages were either incorrectly emended or insufficiently corrected, resulting in misinterpretations or unresolved ambiguities.

This study attempts a exegetical approach to Yi Sang's fiction. Earlier editors interpreted 'hoetak(회탁)' as 'otak' or 'hirak', but such readings diverge from the meaning of hoetak as 'cloudy and turbid'. In addition, 'bongdoraji(봉도라지, mountain peak)' was misread as 'bomdoraji', 'geujeoge(그적에)' as 'geujeokke(the day before yesterday)', and

‘gyotong(traffic)’ as ‘gotong’. Likewise, interpreting ‘apgwa(압과)’ as ‘apa(아과)’ and ‘deongeori(덩어리)’ as ‘beongeori(dumb)’ should also be considered errors.

Meanwhile, ‘jeoljo-lady(窈窕淑女)’ should be corrected to ‘yojo-lady(窈窕淑女)’, ‘jangjeongeopsi(장정없이)’ to ‘jakjeongeopsi(작정없이)’, and ‘ssiin(씨인)’ appears to be a misspelling for ‘sign(싸인)’. Furthermore, ‘domusoyongin(도무소용인)’ is understood as a missing letter of ‘modo musoyongin(all useless)’, ‘danhal’ as an missing letter from ‘pandanhall(판단할)’, and ‘inineun(이니는)’ as a misarrangement of ‘niineun(니이느)’. ‘Mulppuri’ is interpreted as ‘pipe(빨부리)’, while ‘jajeoganda(자저간다)’ appears to mean ‘an increase in frequency’. Through such textual revision and annotation work, it has become possible to establish a more reliable edition and in-depth interpretations of vocabulary.

Key words: Yi Sang, Yi Sang’s fiction, exegetics, revision, misspelling, missing letter, duplicate letter, added letter, annotation

투 고 일: 2026년 2월 9일

심 사 일: 2026년 3월 9일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13일

수정마감일: 2026년 3월 28일